

성인 남자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The Relationships between Age, Socio-economic Status and Clothing Behavior of Korean Men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高愛蘭·姜蕙遠·韓惠媛

Dept. of Clothing & Textile, Yonsei Univ.

Aeran Koh, Hewon Kahng, Haewon Han

<目 次>	
I. 서 론	1. 의복행동 변인의 분포 경향
II. 이론적 배경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행동변 인과의 관계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 의 관계에 대한 연령별 비교
1. 측정도구	4. 중다회귀분석 결과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참고문헌
3. 연구의 한계점	
4. 자료분석	
IV. 결과 및 논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seven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of adult males, and to attempt to develop the measurement of men's clothing behavior.

Age was ranked by five gradation (20~60 ages) and socio-economic status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high, middle, low) based on the subjects' education, occupation and economic status. Six aspects of clothing comfort, satisfaction, status symbol, conformity, fashion interest and clothing acceptance I were assessed with Koh's, Chung's and Lee's questionnaires.

Clothing acceptance by line-drawings of clothing styles representing different levels of formality for occasions designed to measure the awareness of appropriate clothing category of business suits.

The questionnaires in this study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men living in Seoul. The sample was drawn by the random-cluster sampling method. The data from 362 respondents were analysed.

To determine the internal validity of clothing behavior measurement, factor analysis was computed, whereas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was calc-

ulated.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were correlatio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s for clothing behavior instruments, items dealing with status symbol and fashion interest were proved to be satisfactory as a measurement of adult males. Eight factors emerged on clothing acceptance II, most of which were representing inappropriate clothing choice for occasion.

2) Demographic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dult males' clothing behavior. (1) Age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conformity but negatively to fashion interest. (2) Socio-economic status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satisfaction, status symbol, and fashion interest but negatively to clothing comfort. (3) When age was controlled, socio-economic status was negatively related to comfort in 40~50s age group only, and negatively related to clothing conformity in 20~30s age group only. (4) Four subscales of clothing acceptance II representing inappropriate clothing practice for selected occasions were negatively related to age and/or socio-economic status.

I. 서 론

의복은 지위평가에서 중요한 분류적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¹⁾.

Hurlock²⁾은 의복은 남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내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이며 그들의 인생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Hault³⁾에 따르면 남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그가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에 기초하였다. Fürstenberg⁴⁾와 Molloy⁵⁾는 옳바르고 적절한 의복에 의해 얻어지는 첫 인상은 사업과 사회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의복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성공에 대한 불안과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과의 경쟁의식의 결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Form과 Stone⁶⁾에서 보면 정신노동자들이 육체노동자들보다 의복을 더 중요시하며, 사회내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활동이 그들의 주역할인 남성들에게 있어 의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인남자들에 대한 의복연구는 다른 연령층

이나 여성에 비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연령·직업·교육수준·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개인의 생활유형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과 의복행동 측정기준을 세우기 위한 시도는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갖는다.

1) 성인남자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복행동을 조사하며 2) 의복수용경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3) 성인남자용 의복행동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주로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의복 : Hurlock⁷⁾은 각 연령층에 따른 의복의 중요성과 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젊은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업을 구할때 의복과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기성인기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자신의 인생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 의복에 관심을 갖게 되며, 사회

적으로 유동적이므로 의복을 신분상징의 단서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중년기에서는 외적인 신체변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함에 따라 더 젊어보이려고 의복을 사용하게 되며 남자는 대개 자신의 성취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사용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교육수준·경제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수준이 개인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yan⁹⁾은 의도에 대한 자신감은 지적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박은주⁹⁾에 따르면 사무직 남성을 대상으로 한 Kwawu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직위에 따라 의복불만감의 정도가 달라졌다.

Form과 Stone은 사무직과 육체노동자사이의 의복규범유형의 차이가 있으며 취업을 위한 면접과 특정한 사회상황에서의 의복기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¹⁰⁾. 의복행동에 있어서 정신노동자들은 생활안정과 대인접촉으로 인하여 몸치장과 용모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사용하고 유행을 따르는 동조성향이 높다¹¹⁾. Golightly¹²⁾는 성인남자들의 유행의 인지에 있어서는 수입이 가장 영향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이경손¹³⁾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유행관심은 연령 및 월수입과 부적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박은주⁹⁾는 의복의 신분상징성은 연령·교육수준·경제수준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동조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고에란¹⁴⁾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업수준에 따른 의복기준이 존재하고 있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는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20세부터 60세이상까지 10년단위로 5단계로 분류하였고, 사회·경제

적 지위는 교육수준·직업·경제수준을 합하여 3단계로 분류하였다. 즉 교육수준은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 6단계로, 직업은 자유기술토록 한 후 위세(威勢)¹⁵⁾에 따라 7단계로 분류하였다. 경제수준은 9가지 가내물품의 소유정도에 대한 Guttman 척도법으로 구성하여(재생산계수=0.89) 9단계로 분류하였다.

2) 의복행동 변인

본 연구의 의복행동 변인으로는 의복의 안락감, 만족도, 신분상징성, 동조성, 유행에 대한 관심 및 의복수용 I·II의 7측면을 포함하였다.

의복수용검사: 고에란의 연구에서 작성된 의복수용검사 I과 II를 수정·사용하였다. 의복수용검사 I은 일반적인 의복의 색상 및 활동적인 차림에 대한 수용을 나타내는 설문내용이며, 의복수용검사 II는 신사복을 흑백 line-drawing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의복스타일은 격식을 차린(formality) 정도를 달리하는 단색상의, 단색قم비(상·하의의 색이 다른 것), 체크قم비의 양복(suit) 차림과 잠바차림이며, 넥타이의 유무에 따라 총 8가지의 의복형태를 제시하였다. 질문내용으로는 5가지 착용목적(결혼식에 갈때, 면접할때 운동경기 구경갈때, 친구 또는 가족과의 외식때, 직장에 출근할때)을 제시하여 각 착용목적에 따라 제시된 의복스타일의 적절한 정도를 Likert type 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외의 의복행동 검사문항: 의복의 안락감, 만족도, 신분상징성, 동조성 및 유행에 대한 관심검사는 선행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Likert type 문항을 채택하였다. 즉, 안락감과 동조성은 정미실¹⁶⁾에서, 만족도와 신분상징성은 고에란¹⁴⁾에서, 유행에 대한 관심은 이영윤¹⁷⁾에서 선택하였으며 일부문항은 성인남자에게 알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의복의 안락감, 만족도, 신분상징성, 동조성, 유행에 대한 관심 및 의복수용 I에 관한 총 48문항을 무작위로 혼합하여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의복수용 II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내용은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하였다.

〈표 1〉 표집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명	%
연령		20~29세	117	32
		30~39세	113	31
		40~49세	87	25
		50~59세	36	10
		60세이상	6	2
교육수준		국민학교	8	2
		중학교	27	8
		고등학교	133	37
		초급·전문대학	29	8
		대학교	151	41
	대학원	14	4	
직업		무직	20	6
		비숙련직	2	—
		반숙련직	8	2
		숙련직	48	13
		판매직	86	24
		사무직	84	23
		관리직	62	17
		전문직	22	6
	학생 ^a	32	9	
경제수준	하	하	9	3
		중	16	4
		상	39	11
	중	하	49	14
		중	68	19
		상	71	20
상	하	57	16	
	중	25	6	
	상	28	7	
사회·경제적 지위		하	63	19
		중	193	59
		상	74	22

a. 학생은 2차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b.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 피험자 n=330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자료수집은 1984년 2월 한국결핵조사연구소의 자문을 얻어 무선균집표집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즉, 서울시내 동사무소 중 무작위로 40개소를 추출하여 각 동마다 10부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보조원이 피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성인남자 한명이 응답하도록 배부하였고 그 다음날 회수하였다. 전체 설문지 중 16부가 회수되지 않았고 응답이 불완전한 22부를 제외시킨 총 362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수집시 각 집에 거주하는 성인남자 중 임의로 한사람이 응답하였다는 점과 연령이 젊은층에 치우쳤고 60대는 극히 적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1) 1차분석

타당도 검증: 의복행동검사 전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는, 의복행동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의 의복수용검사 II의 하위척도 분류를 위한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각 변인의 점수는 〈표 2〉에 제시된 인자부하치(factor loading)에 준하여 새로이 산출(각 문항의 원 점수 X 인자부하치의 합)하여 2차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타당도에 있어서 인자부하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의복요인에 모인 구성 문항들의 수는 안락감은 8문항 중 3문항이, 만족도와 동조성은 4문항이 적재되었다. 한편 신분상징성과 유행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각각 7문항씩 모임으로서 높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의복수용 I은 여러요인에 분산적으로 적재되었고 선행연구⁽⁴⁾에서와 같이 의복수용 I과 II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의복수용 I은 의복수용 태도 이외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것으로 풀이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의복수용 II는 인자부하치에 따라 8개의 하위척도로 분류되었다. 즉, ① 결혼식·면접시험

<표 2> 의복행동검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	문 항 내 용	인 자 부 하 치				
		I	II	III	IV	V
의복의 안락감	나는 편하기 때문에 티셔츠(T-shirts)를 주로 입는다.	.58				
	나는 꼭 필요할때가 아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정장차림을 하지 않는다.	.51				
	나는 편하기 때문에 스포츠웨어(sports wear)를 즐겨 입는다.	.39				
	나는 모양이 마음에 들어도 촉감이 좋지 않으면 입지 않겠다.	.18				
	나는 편하지 않은 옷은 신경이 쓰여서 못입는다.	.12				
	나는 몸에 꼭 맞는 옷보다는 조금 넉넉한 옷을 즐겨 입는다.	.04				
	나는 멋이 있는 옷이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입고 다닌다.	.04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입어서 편한것만 입는다.	.02				
의복의 만족도	나는 옷의 가지수가 적어 불만이 많다.		.83			
	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적어 불만이다.		.68			
	나는 멋있게 옷을 입을 줄 몰라서 불만스러울 때가 많다.		.40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은 나의 용도에 충분하다.		.31			
	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잘 맞추어 입는다고 자부한다.		.21			
	나는 고급품의 옷은 없으나 옷에 대한 불만은 없다.		.20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세련되게 옷을 입는다고 자부한다.		.05			
	나는 조화있게 맞추어 입을 의복수가 부족해서 불만스럽다.		.04			
유행에 대한 관심	유행을 따르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74		
	나는 유행에는 관심이 없다.			.70		
	유행을 따르다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이다.			.58		
	나는 유행이 좋은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48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게 생각된다.			.40		
	옷을 사거나 맞출때에는 항상 유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다.			.33		
	내옷은 유행에 뒤떨어진 스타일(모양)의 옷이 많다.			.31		
	나는 고급품이라도 유행이 지난 옷은 입지 않는다.			.26		
신분상 정성	상류층이라고 인정되려면 특정한 스타일이나 좋은 품질의 옷을 입어야 한다.				.68	
	나에게 어울리는 옷일지라도 그것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면 나는 입기를 주저한다.				.66	

요인	문항내용	인자부하치				
		I	II	III	IV	V
	나는 적어도 직업상의 일로 사람들을 만날때는 남이 인정해 줄 만큼 좋은 품질의 옷을 입고 싶다.				.44	
	나는 마음에 드는 옷이라도 그것이 값싼 제품이면 자주 안입게 된다.				.43	
	어느 계층에 속하려면 그 계층의 사람들이 입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는때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32	
	나는 거의 비슷한 옷이라도 이름없는 메이커의 것보다는 다소 비싼 일류메이커의 옷을 구입한다.				.30	
	낯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때 나의 옷차림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11	
의복의 동조성	남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으면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65
	나는 될 수 있으면 남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9
	나는 새옷을 살때 남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모양의 옷을 선택한다.					.57
	나는 남들의 옷과 비슷한 가격의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48
	나는 남들과는 다른 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이 좋다.					.17
	주위 사람들이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을 입고 싶다.					.16
	날씨가 추워도 다른 사람들이 오바코트를 안입으면 나도 입지 않겠다.					.09
	만약 어떤 모임에서 내가 남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09

때 잠바차림 ② 운동경기 구경갈때 양복차림 ③ 결혼식·면접시험때 넥타이를 맨 양복차림 ④ 면접시험때 넥타이를 매지않은 양복차림 ⑤ 직장출근할때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 ⑥ 결혼식갈때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차림 ⑦ 의식때 넥타이를 매지 않은 콤피 또는 잠바차림 ⑧ 의식때 넥타이를 맨 양복차림 등의 주로 착용목적에 적절하지 못한 의복선택을 나타내는 8가지 이다.

신뢰도 검증 : 의복변인 각 측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분석

의복행동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 변량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 변인의 분포경향

의복행동 각 변인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이었으며 점수분포경향은 다음과 같다.

의복의 안락감은 27~34점까지의 높은 점수에 64%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만족도는 23~30점사이에, 동조성은 19~26점사이에 전체의 70%가 보

〈표 3〉 의복행동검사 각 측면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의복행동 측면	신뢰도 계수
안 락 감	.48
만 족 도	.65
신분 상징성	.67
동 조 성	.56
유행에 대한 관심	.71
의복수용 II-a	.81
b	.80
c	.80
d	.80
e	.75
f	.80
g	.61
h	.57

포되었다. 신분상징성과 유행에 대한 관심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성인남자들은 안락감을 가장 중요시하고 신분상징성과 유행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2.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의복행동 변인과의 관계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변인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안락감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지위가 낮아질수록 안락감을 더 중요시 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지위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집단내의 의복기준이 강하

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집단에 속한 즉, 위세가 낮은 직장등에 속한 사람들은 직장내의 의복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자신이 입기에 편한 의복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만족도, 신분상징성 및 유행에 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⁹⁾¹¹⁾¹³⁾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동조성은 연령에서만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집단별 비교에서는 〈표 5〉와 같이 40, 50대에서 더 높은 동조성이 나타났다. 즉, 40·50,대의 중년층은 직장과 같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행에 대한 관심은 연령별 비교에서 〈표 6〉과 같이 2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수용 하위척도와의 관계에서는 〈표 7〉과 같이 의복수용 II-a, d는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와 유의적인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의복수용 II-e는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만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대체로 격식을 차린 의복을 입는 것이 전통적인 의복규범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격식을 덜 차린 의복착용에 대한 수용은 연령이나 지위가 낮아질수록 더 많았다.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령별 비교

연령을 20·30대와 40·50대의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연령을 통제 한 후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8〉 〈표 9〉와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변인과의 상관 관계(7)

n=330

의복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 령	교육수준	직업수준	경제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a
안 락 감		-.08	-.15**	-.13**	-.06	-.16**
만 족 도		.05	.13**	.21**	.25**	.24**
신 분 상 징 성		.01	.10*	.13**	.10*	.10*
동 조 성		.23**	-.08	-.03	-.02	-.05
유행		-.12*	.16**	.17**	.17**	.19**

a.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수준·직업수준·경제수준의 합

* $p < .05$ ** $p < .01$

〈표 5〉 연령에 따른 동조성의 일원 변량분석 결과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M	7.99	8.51	8.90	8.90	8.83	
S.D	1.66	1.54	1.54	1.41	2.01	
N	117	113	87	36	6	359
ANOVA	F ratio=4.99**					

**p<.01

〈표 6〉 연령에 따른 유행에 대한 관심의 일원 변량분석 결과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M	10.82	10.12	10.11	9.39	10.12	10.27
S.D.	2.41	2.28	2.27	1.60	3.19	
N	117	213	87	36	6	359
ANOVA	Fratio=3.24*					

*p<.05

같다.

의불안락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40·50대에서만 나타나 중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안락감을 중요시 하였다.

동조성은 20·30대에서만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젊은층은 지위가 낮아질수록 동조성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⁹⁾¹¹⁾와 일치되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 및 측정도구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 연령층 및 지위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적절한 의복기대가 존재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분상징성은 20·30대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40·50대에서는 경제수준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이는 Hurlock⁷⁾의 진술과 같이 젊은층은 사회적으로 유행적이기 때문에 의복으로서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나타내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복수용 하위척도에서는 결혼식·면접시험때 넥타이를 매지않은 양복차림에 대한 수용은 두 연령층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넥타이의 유무가 의복수용 추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직장출근할때와 결혼식갈때 넥타이를 매지 않는 차림은 40·50대에서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착용정도가 높았다. 이는 중년층에게는 젊은층보다 좀 더 확실한 의복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된다고 풀이되며, 한편으로는 안락감에 두는 가치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7〉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수용 하위척도와의 상관관계(r)

의복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수준	경제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a	
의복수용 II-a	a	-.11*	-.21**	-.30**	-.17**	-.19**
	b	.05	-.07	-.02	.06	.03
	c	-.05	-.06	-.06	-.02	-.11*
	d	-.11*	-.29**	-.26**	-.14**	-.19**
	e	-.06	-.18**	-.10*	-.12*	-.11*
	f	-.05	-.10	-.11*	-.02	-.10
	g	-.09	.03	.02	.02	-.04
	h	-.03	.09	.08	-.16**	-.03

a.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수준·직업수준·경제수준의 합. *p<.05 **p<.01

II-a : 결혼식, 면접시험때 잠바차림

II-d : 면접시험때 양복 no tie 차림

II-e : 직장 출근할때 no tie 차림

II-f : 결혼식 갈때 양복 no tie 차림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변인과의 상관계수의 연령별 비교(r)

20. 30대 : 197명
40. 50대 : 129명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수준		경제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b	
			20.30대	40.50대	20.30대	40.50대	20.30대	40.50대	20.30대	40.50대
의복변인										
안	탁	감	-.11	-.23**	-.10	-.18*	.02	-.21**	-.05	-.26**
만	족	도	.13*	.13	.19**	.25**	.29**	.27**	.28**	.27**
신	분	상	.12*	-.02	.14*	.12	.05	.19*	.13*	.14
동	조	성	-.15*	-.05	-.14*	.08	-.16*	.12	-.19**	.11
유	행		.19**	.08	.18**	.16*	.13*	.27**	.20**	.25**

a.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수준·직업수준·경제수준의 합

*p<.05 **p<.01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복수용 하위척도와의 상관계수의 연령별 비교(r)

20. 30대 : 197명
40. 50대 : 129명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수준		경제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a	
		20.30대	40.50대	20.30대	40.50대	20.30대	40.50대	20.30대	40.50대
의복수용	II-a	-.21**	-.23**	-.29**	-.29**	-.14*	-.20*	-.24**	-.28**
	b	.03	-.16	.07	-.09	.11	.01	.10	-.07
	c	-.03	-.11	-.07	-.04	-.07	.06	-.08	-.02
	d	-.29**	-.31**	-.25**	-.26**	-.08	-.19*	-.22**	-.29**
	e	-.08	-.27**	-.06	-.12	-.03	-.17*	-.06	-.22**
	f	.02	-.30**	-.07	-.19*	.05	-.14	.02	.09
	h	.07	.09	.10	.01	-.17*	-.13	-.05	-.03

a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수준·직업수준·경제수준의 합.

*p<.05 **p<.01

II-a : 결혼식, 면접시험때 잠바차림

II-d : 면접시험때 양복 no tie 차림

II-e : 직장 출근할때 no tie 차림

II-f : 결혼식 갈때 양복 no tie 차림

4.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직업·교육수준·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어떠한 변인이 각각의 의복행동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복행동변인 각각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락감에서는 교육수준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해 4%(F=2.92, p<.05)가 설명될 수 있었다.

만족도는 경제수준 그 다음으로 직업수준에 의해 8%(F=6.48, p<.01)가 설명되었다.

동조성은 5%(F=3.81, p<.01)중 4%가 연령 [r]에 의해 설명되었다.

유행에 대한 관심에서는 연령과 경제수준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으며 7%(F=5.65, p<.01)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다.

의복수용 하위척도에 있어서는, 결혼식·면접시험때 잠바차림은 직업수준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으며 9%(F=6.86 p<.01)가 설명되었다.

면접시험때 tie를 매지않은 양복차림은 직업과 교육수준에 의해 9%(F=7.23, p<.01)가 설명되었다.

직장출근때 tie를 매지않은 차림은 교육수준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3% ($F=2.45, p<.05$)가 설명되었다.

이상의 분석으로서 본 연구결과를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인남자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는 의복행동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복의 중요성은 연령층에 따라 각기 달랐으므로 남성에 대한 의복행동 연구에서 연령층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직업에 따른 각기 상이한 의복규범이 존재할 것이므로 동일한 위계내에서의 여러 직종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성인남자의 의복행동 측정에 사용된 신분상징성과 유행에 대한 관심점사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어 성인남자용 측정도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한편 의복의 안락감, 만족도, 동조성점사 문항들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복수용점사는 의복기준으로부터의 이탈 비이탈을 측정하므로써 성인남자의 의복선택의 적절함을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성인남자들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성인남자들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의복착용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McJimse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Ames: Iowa state Univ. Press, 1973, p.10
2.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hli: Tata Mcgraw-Hill Pub. Co. Ltd., 1978, p.112.
3. Hoult, T.F., "Clothing and the Status Ratings of Men: An Experiment," in Roach, M.E., and J.R. Eiche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5, pp.250~256.
4. Fürstenberg, E.V. & C. Durie *The Power Look* Fawcett columbia, CBS Inc., 1978, pp.4~6.
5. Molloy, J.T., *Dress for success*, New York: Peter H. wyden, 1975, pp.1~10.
6. Form, W.R. & G. Stone,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 of Sociology*, Vol. 62, 1957, pp.504~510.
7. Hurlock, E.B., op. cit, p.211,271.
8.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Inc., 1966, pp.269~301
9. 박은주 "직장남성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 및 직업만족도와 의 상관연구—정신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0.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84, p.200.
11. 김영모, 한국사회학. 서울:법문사 1977, p.102,202.
12. Golightly, A.L., "Men's Perceptual Awareness and Acceptance of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Univ., 1975.
13. 이경손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14. 고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5. 홍영숙 "지위불일치에 관한 연구—긴장경후와 직업적 반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6. 정미실 "남자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7.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